

방준수 교사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

장흥향원중 방준수 교사, 체험수학 활성화 공로

장흥향원중학교 방준수 수석교사가 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2023년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을 수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에 장흥향원중 방준수 교사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방 수석교사는 문제 풀이 중심의 수학에서 벗어나 직접 보고, 만지

고, 느끼는 체험수학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체험수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이접기와 보드게임을 이용한 학습자료를 개발 수학동아, 한국수학교육학회지 등에 기고했으며 국립광주과학관 수학아트(Math Art) 작품공모전에 출품해 일반부 동상을 2차례 받았다. 방 수석교사는 전남수학축전, 수학교육지원단 컨설팅 지원팀, 수학



장흥향원중학교 방준수 수석교사. 교육체 험센터 건립 활동, 신 안 1004 수학축전, 수학융합 프로그램 개발 연구회장을 맡아 수학 여 행(Math-tour) 자료를 개발 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수학교육학회와 전국

수학문화연구회 회원, 스토리가 있는 전남체험수학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체험수학동아리, 교내외 수학체험전, 수학캠프,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체험수학 관련 연수에 출강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 배출은 2021년 이경호 임자초 교감 이후 2년 만이다. 한편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은 지난 2013년 만들어졌으며 2021년부터는 전국 초·중·고(수석)교사 중에서 10명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김 호 기자

포토 뉴스



(사)함께하는사람발 광주전남지부, 식료품 꾸러미 기탁 (사)함께하는사람발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24일 취약계층을 위해 식료품 꾸러미 50박스(230만원 상당)를 용해동과 부주동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사)함께하는사람발에서 진행하는 '마르지 않는 곳간' 사업의 일환으로 한부모 및 홀로사는 어르신 등 응해동과 부주동 각 5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목포=김재욱 기자

광주학생예술누리터 ‘토요일 끼있는 아이들 축제’ 개최

지역연계 예술체험 수업 ‘토요예술교실’ 한해 마무리



광주학생예술누리터가 지난 25일 토요예술교실 학생과 함께하는 ‘토끼들 축제’ (토요일 끼있는 아이들 축제)를 진행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4~11월 학생 대상 지역연계 예술체험 수업인 토요예술교실 운영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발표회이다. 이번 토끼들축제(토요일 끼있는

아이들의 축제)는 총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연, 전시, 부스 체험으로 진행됐다. 단편 영화, 연극, 밴드, K-POP 댄스 등 공연이 진행됐으며, 전시는 사진, 목공건축, 웹툰, 애니메이션이 1층에서 이뤄졌다. 또 페이스페인팅, 그림북만들기 등 4개의 체험 부스가 설치되기도 했다. 초4~중3 128명의 학생들은 토요

예술교실을 통해 누리밴드드럼, 기타, 보컬 등), K-POP 댄스 등 12개 프로그램에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와 함께 25주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수료식과 함께 그동안 배운 내용을 선보였다. 이번 토요예술교실에 참여한 학생은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지도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친구들과 밴드 공연을 준비하면서 갈등도 있었지만 조율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에 체험이 가능한 광주학생예술누리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 광주학생예술누리터에서의 예술체험이 자양분이 되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전남신용보증재단 이강근 8대 이사장 취임



전 남 도 는 27일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제8대 이사장으로 이강근 전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장을 임명했다. 신임 이강근 이사장은 재단 공개 모집 절차와 전남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전문성·리더십·윤리관 등 능력을 검증받아 선정됐다. 임기는 2년으로 성과에 따라 1년씩 최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 이사장은 금융위원회 산하 중소기업 종합금융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1991년부터 약 33년간 근무하며 신용보증 관련 업무 전문성을 쌓았다. 소기업·소상공인 보충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은 그 기능이 유사하고 업무 연계성이 높아 재단을 이끌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이사장은 지난 2월 ‘전라남도 중소기업 베타팀 특별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장으로서 협약 체결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지역에 대한 애정을 보여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고급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에 이어 경기침체로 지역 소상공인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재단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소명감을 갖고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2001년 설립된 전남도의 공적 금융지원기관으로 올해로 설립 22주년을 맞았다. /김도기 기자

초등생 시각으로 담아낸 마을 이야기 그림책 ‘눈길’



동구 지산동에 위치한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마을 그림책 ‘지산동 한 바퀴 돌아봤니?’가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출간된 그림책은 학생들이 마을 곳곳을 돌며 이웃들의 이야기와 지역 문화유산·인물 관련 유적지 등을 아가자기한 그림과 글로 기록해

동구 인문학당 ‘생각모음 토론단’ 참여·동산초 재학생 출간

‘인문도시’를 지향하는 동구만의 특별한 기록물로 남게 됐다. 동구는 올해 하반기 인문학당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나, 우리 생각모음 토론단’ 프로그램을 지난 3개월 동안 인문학당과 인문거점시설 등에서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토론단에 참여한 동산초교 학생 40여 명은 ‘우리 마을의 역사 알기와 마을 그림책 만들기’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마을 직업인, 시민 문병란의 집, 오지호 화백의 자택, 지막센터 등을 취재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남겼다. 특히 마을 그림책 제작에 동산초교 송정아·정미향 교사를 비롯해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활동가 임혜영 나눔행복마루공동체 대표가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 공동체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 교육에 관해 고민하고 상생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로 동산·율곡초교, 지산동 주민협의회, 주민 등 각계각층이 협력해 ‘다 함께 행복한 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구는 29일 10시 동구 인문학당에서 마을 그림책 ‘지산동 한 바퀴 돌아봤니?’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향후 그림책은 동구 인문학당 및 광주동산초등학교 도서관에 비치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한국에너지공대, 중학생 멘토링 성료

2개월 진행 나주 중학생 대상 학습 멘토링 마지막 수업



한국에너지공대는 지난 23일, 2개월 간 진행된 나주시 중학생 대상 학습 멘토링의 마지막 수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대 RC교육센터에서는 2학기 사회공헌 수업의 일환으로 중학생 대상 학습 멘토링, 초·중등 학생 대상 에너지 교실, 고등학생 진로멘토링 등을 운영했다. 수업을 이끈 김은정 교수에너지공학부 교수, RC교육센터장은 “나주시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흥미를

갖고, 수학이나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에너지공대 학부생들은 사전에 RC교육을 통해 에너지교실 멘토링에 필요한 이론, 중등교육과정 이해, 행동 발달 특징 등에 배운 체계적인 멘토링을 위해 교안을 직접 준비했다.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나주시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습 멘토링 활동은 매주 목요일 저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멘티의 학습을 돕고 진로에 대해 조언하며 교감을 쌓았으며, 마지막 수업은 그동안의 멘토링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한국에너지공대 오명환 교수의 ‘기후 위기를 기후 기회로’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마무리했다. /김 호 기자

순천교육청, 늘봄시범학교 운영 돌아 보다

2023년 늘봄시범학교 교감 및 담당자 연수 실시



순천교육지원청은 관내 늘봄시범학교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순천시 관내 늘봄시범학교 운영 교감 및 담당자 24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 운영, 2023년 늘봄운영 반성 및 2024년 달라진 내용에 대한 전달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여수시 일원에서 오동도 생태체험 및 장도 미술작품 감상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시범학교 담당 선생님들은 “2024년 늘봄운영 변화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윤 순천교육장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시범학교 담당 선생님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내년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알게 되고 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 골약동발전협의회, 마을사진 전시회

‘옛 추억과 그리움 담다’…내달 1일까지 50여 점 선봬



광양시 골약동발전협의회는 ‘옛 추억과 그리움 담다’라는 주제로 골약동사무소에서 골약동 마을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로 24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회에는 총 50여 점의 70년대 광양만에서 고막종패를 선상 살포하는 장면부터 ‘컨’부두 건설로 사라진

하포선창, 아랫섬, 골약초등학교, 장도분교 등과 택지개발로 사라진 성황, 수동, 도이, 금곡, 고길마을 전경도 볼 수 있다. 또한, 구방산에서 바라본 광양항 황금 산단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돼 있다. 이치호 골약동발전협의회장은 “골약동은 ‘컨’부두 건설과 2000년대부터 시작된 대규모 택지개발로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주민들에게 추억과 그리움을 선사하고 새로 전입한 주민들에게는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사진전”이라고 전했다. 박상훈 골약동장은 “지난 2021년도 하반기부터 약 4300세대가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으로 한층 젊은 분위기의 골약동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전시회를 마련해 준 골약동발전협의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광양=조순의 기자